

# 광주 상급종합병원 예비간호사들 '기약 없는 대기'

의정갈등 장기화에 광주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예비 간호사들의 '기약 없는 대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병원들이 최근 '중증환자 중심 병원' 전환에 나섬에 따라 간호사 신규 채용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기존 규정 '신규 간호사 채용 시 2년 안에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임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개정했다.

이는 현재 2년 전 채용된 간호사들이 대기 발령중인데 따른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 치러진 2023년 간호사 채용 시험에서 450명을 합격시키고 284명을 정식 채용했다. 그러나 중도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167명은 빈자리가 없어 '대기순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2024년도 간호사 채용 시험에서도 220명이 합격했으나 전원 임용 대기 중이다. 그동안 대학병원 내 간호직렬은 필요

## 의정갈등 장기화 적자 누적...최근 '중증환자 중심 전환'도 영향 전대 '2년 내 임용'→'1년 연장' 규정 개정...조대 155명 임용 지연

인원이 많고 이직률이 높아 매년 수백명을 채용했다. 현원보다 많은 규모를 합격시키고 병원 내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순번대로 즉각 채용하는 식이다. 반면 올해 들어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의 간호사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퇴임자를 제외하면 사직자, 즉 'T.O'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병원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적자가 누적돼 정년퇴임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TO 감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중환자 중심 병원 전환 사업'에 선정돼 일반 입원실 병상, 경증 외래 진료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간호사 신규 채용은 회복한 상황이다. 조선대병원도 현재 채용 시험에 합격한 155명의 간호사가 1년째 대기 중이다. 중도포기자는 1명도 없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보통 11-12월 중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하나 올해는 2025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이 길어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병원 구조 전환까지 더해지면서 부족한 간호사가 현재는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다"며 "채용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1년 넘게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간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전남 14개 대학 교수·연구자 309명이 참여하는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26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국정 파괴·국민 신임 잃은 정권 물러나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시국선언...오늘 광주지검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대한민국이 침착하다 못해 가련한 처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시국선언에는 14개 대학에서 309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선서 불이행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입법기관 패싱 ▲마·일 편중 및 저자제 외교 ▲언론 탄압 등의 행태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지칭했다.

또 “윤 정권의 범죄 훼손은 국정 농단을 넘어 국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은 “현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었으며 더는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다”며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27일 오전 11시50분 광주지검 검찰 앞에서 광주·전남·전북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한다. 이날 시국선

언에는 20개 대학 215명 교수가 뜻을 함께한다. /주성학 기자

### ‘묻지마 살해’ 박대성 살인예비 부인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추가 범행 대상물색에 대해선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박대성 측은 앞서 밝혔던 대로 살인행위는 인정했으나 범행 후 술집과 노래방을 찾았던 게 추가 살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안재영 기자

## 사기 혐의 법정구속 70대 불법 카드거래는 ‘집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70대 사업가가 불법 카드거래 혐의로 별도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6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법 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10일부터 2023년 3월30일까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회사법인의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138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 실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 소유 회사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과 별도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사기 혐의에 대해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된 상태에서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여타의 피고인과 달리 죄수복 차림이 아닌 평복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안재영 기자

## 제자들 ‘펜싱 칼’로 때린 코치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신체·정신적 학대” 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판결

훈련하던 학생들이 ‘펜싱 칼’로 때리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이어간 펜싱부 코치가 1·2심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특별법(시절종사자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화순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지도하던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반영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사고 차량서 ‘흥기 상처’ 50대 부부 발견

단독 사고가 난 차량에서 흥기에 찢린 상처가 있는 부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가 나섰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산구 지족동 동광산로에 이근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목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A(50대)씨와 B(50대·여)씨를 발견했다. 이들 모두 흥기에 찢린 상처가 있어 소방 당국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얼마 되지 않아 숨졌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차량 수색에 나선 경찰은 흥기 1점을 발견했다. A·B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없어 경찰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근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